

“명품코스 입소문 듣고 왔다 즐겁게 달리고 갑니다”

전국서 700여 마라토너 참가
8km·16km·24km·단체전 경쟁

“즐겁게 잘 달리고 돌아옵니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 9번째 질주가 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화순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70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했다.
당초 500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명품코스’와 수준 높은 대회 진행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참가 문의가 쏟아졌고, 참가 폭을 넓혔다.
마라톤세상이 주관하고 화순군, 화순군의회, 광주 동구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8km, 16km, 24km 등 3개 부문과 단체전 경쟁으로 전개됐다.
참가자들은 셀레브(옛 소아르겔러리) 입구에서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반환지 4km 코스를 왕복해 달리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기량을 점검하고 선의의 경쟁도 펼쳤다.
24km 코스에서는 이인식(광주 팀에이스)씨와 이산아(고성마라톤)씨가 각각 1시간 38분 09초, 2시간 03분37초82에 질주를 끝내면서 남녀 우승자가 됐다.
16km 남녀우승자는 이준혁(순천리닝크루)씨와 이현주(광주시 달리기교실)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각각 1시간 3분 25초와 1시간 38분 09초 14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8km 부문에서는 대전에서 왔은 심민국(30분41초25)씨와 정읍에서 온 김유순(38분7초84)씨가 1위를 차지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조를 구성해 경쟁을 펼친 24km 단체전에서는 ‘목포러닝스쿨(MPRS)’ 소속의 신중섭·추은하·윤성호씨가 1시간 57분 59초의 기록을 합작하면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고즈넉한 너릿재 옛길을 가로지르며 여름 마라톤을 즐긴 참가자들은 ‘특별한 선물’에도 반색했다.
뜨거운 질주 뒤 열기를 식힐 수 있게 준비한 아이스크림과 너릿재 풍경을 담아 제작한 완주 메달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2일 오전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장필수 광주일보 논설실장, 구복규 화순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정형찬 화순군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문별 우승자

결승선 1km 앞서 대역전극 ‘목포러닝스쿨’ “마라톤 인생 통틀어 첫 1위 ‘가문의 영광’”

24km 단체 우승 신중섭·추은하·윤성호씨... 팀 흥일점 추은하씨 여성 출전자 중 1위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단체 24km 우승의 영예는 ‘목포러닝스쿨(MPRS)’이 차지했다.
신중섭(45·추은하(45·여)·윤성호(29)씨는 이번 대회 단체 24km 부문에서 1시간 57분 59초의 기록으로 당당히 시상대 맨 위에 자리했다.
점점이 없던 이들은 지난해 5월 목포 거주자들이 꾸린 러닝크루에서 인연이 시작

돼 러닝 메이트로 발전했다.
마라톤 인생을 통틀어 오늘 첫 1위를 했다는 신씨는 “크루 중 애스들끼리 출전했다. 뛰어난 동반자들을 만나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팀의 흥일적인 추씨는 24km 부문 여성 출전자들 통틀어 1위 기록을 세우며 단체전 우승에 힘을 실어줬다.
우승 소감에 극적인 역전의 순간도 빼

놓을 수 없었다.
목포러닝스쿨의 ‘훈련반장’으로 불리는 윤씨는 “중후반까지는 선두 팀과 차이가 많이나 2등에 만족하려 했지만 22km 지점에서 상대팀 여성 선수가 지쳤고, 23km 지점에서 추월할 수 있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승을 이룬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2일 오전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24km 단체전에서 목포러닝스쿨의 신중섭, 추은하, 윤성호 선수가 1시간 57분 59초로 1위로 결승점에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라톤은 삶의 활력... 팀원들 모두 입상 행복해”

남자 24km 우승 이인식씨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인식(48·팀에이스)씨가 1시간 38분 09초 14에 24km 질주를 끝내면서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철인삼종을 통해 달리기 매력에 빠진 그는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상에 무기력함이 있었는데, 달리를 통해 힘이 생기고 활기차진 것을 느낀다.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확실히

달리기를 하니 체력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운송분야에서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달리를 하면서 일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다. 이씨는 평일에는 상무시민공원을 달리고 주말에는 무등산에서 산악마라톤을 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팀에이스’에서 뛰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팀 회원인 안규석(2위), 고영석(3위) 씨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그는 “우리 팀은 광주·전남에서 실력이 잘 갖춰진 사람들로 이뤄졌다. 팀원이 다 입상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며 “작년에는 대회가 겹쳐서 너릿재 대회에서 뛰지 못했는데, 좋은 길에서 시원하게 달리면서 1위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남도의 경치·맛 그리워 내년에도 또 올래요”

여자 24km 우승 이산아씨



여자 24km 1위의 주인공은 2시간 03분 37초82에 결승선을 통과한 이산아(48·고성마라톤)씨다.
이씨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들어졌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뛰어보기로 다짐했다. 우승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9년 전 마라톤을 시작한 그는 “즐겁게 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가족들도 응원해 주고 있다. 요즘은 자기관리

가 중요하다. 신랑도 같이 달리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마라톤은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 운동”이라며 웃은 이씨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마라톤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결승선에 다다르기까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씨는 “끝”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이씨는 “오르막길이 있다해서 처음에는 겁도 났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마음으로 달렸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꼭 와야겠다는 마음 먹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에서 온 그는 “마라톤 대회로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맛있는 먹거리도 경험하고 주변도 여행할 수 있어서 좋다”며 운전자 등 화순투어 계획도 밝혔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포기는 없다...하반기 풀코스 2시간 39분대 목표”

남자 16km 우승 이준혁씨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이준혁(33·순천·팀엔듀런스, 순천리닝크루)씨는 2일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16km에서 1시간 3분 25초를 기록하며 남자 1위를 차지했다.
소방대원으로 근무 중인 이씨는 직장 동료들과 2023 순천 남송릉 마라톤대

회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마라톤에 입문했다.
그는 좋은 성적을 위해 한 달에 2~3일을 제외하고 매일 러닝 훈련을 하고 있다.
이씨는 “달릴 때만큼은 잡생각이 없어지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

게 된다”며 “한계에 부딪히며 나를 뛰어넘을 때 얻는 쾌감이 마라톤의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나의 취미 활동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가족 덕”이라며 “올해 10km 33분대 진입과 하반기 JTBC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2시간 39분대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

“다이어트 위해 시작...이젠 마라톤이 삶의 일부”

여자 16km 우승 이현주씨



2일 열린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여자 16km 우승자는 이현주(43·광주·광주시 달리기교실)씨에게 돌아갔다.
공식 기록은 1시간 14분 21초04.
다이어트 목적으로 2021년 마라톤을 시작한 이씨에게 마라톤은 이제 ‘삶의 일부’가 돼버렸다.
그녀는 “살이 빠진 것은 3-4kg 정도지

만, 더이상 나에게 ‘체중 감량’이 마라톤을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달릴 때만큼엔 잡생각을 잊을 수 있어 일상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금까지 마라톤 대회에 20여

회 출전하며 기록을 갱신해 왔다.
그녀는 “출전할수록 기록이 점점 좋아져 작년에는 풀코스를 3시간 10분 이내 완주했다. 풀코스 3시간 이내 진입하는 ‘서브 쓰리’가 하반기 새로운 목표”라며 “오는 10월 국내 유일 트레일 러닝 대회인 ‘트랜스제주’ 대회에 참가해 평지가 아닌 산길을 누비는 재미를 맛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